

“세월호 사칭 스미싱 문자 열어보지 마세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스미싱 7건 확인
스미싱 대처법 위장해 현혹하는 수법도
인터넷주소 클릭 땀 악성프로그램 설치

세월호 침몰사고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일 세월호 침몰사고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3건 추가로 발송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스미싱 문자는 총 7건 발견됐다. 확인된 스미

싱 문자는 발견되는 즉시 차단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에 실시간 통보하고 있다. 특히 추가로 발견된 스미싱 문자는 세월호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대처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내용이 담겨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로 확인된 3개의 스미싱 문자는 ▲실시간속보[세월호]침몰사망자55명더늘어 동영상보기 hosisting.info ▲세월호 사칭 스미싱 문자 추가 발견...주의 당부 스미싱 대처방법 http://goo.gl/dVX4r1 ▲주소를 바꾼 세월호 침몰 그 진실은... http://www.tl/poso 등이다.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



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된다.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이동통신사명, 문자메시지 등이 빠져나가게 된다.

현재 관계기관에서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를 통해 발견된 악성 프로그램의 유포지, 정보유출지를 즉시 차단하고, 백신개발사에 악성 프로그램 샘플을 공유했다. 백신을 개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만약 자신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 모바일 백신으로 점검하거나 직접 삭제해야 한다. 스미싱으로 의심이 되는 문자를 수신했거나 직접 악성 프로그램 삭제가 어려울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2차 피해예방과 백신 프로그램 설치방법, 악성 프로그램 제거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음식 앱 경쟁 뜨겁다

선두 '배달의민족' 2위 '요기요' 경쟁 치열

소셜커머스 '티몬' 배달 쿠폰 서비스 개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오프라인 서비스 모델이 모바일로 옮겨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중 최근 주목받는 것이 바로 '배달 음식'. 20일 업계에 따르면 1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배달 시장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배달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들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 차별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물론, 소셜커머스 등도 관련 서비스를 내놓으며 경쟁에 동참했다. 소비자들은 전단지나 인터넷 검색으로 업소를 찾던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에서 자동 정렬되는 근처 배달 음식점의 메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시장 선두 '배달의민족'

현재 시장에선 1·2위 경쟁이 치열하다. 업계 선두는 '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이 앱은 2010년 출시와 동시에 앱스토어 1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사용자를 늘려왔다. 특히 지난해에만 5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며, 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다. 현재 '배달의민족'을 통해 일어나는 주문은 하루 10만 건에 달한다. 또 13만 여개의 업소가 등록돼 있고, 매일 150여개 업소가 추가되고 있다. 월 순방문자수는 150만명이며, 월평균 거래액은 550억원을 넘어섰다. 연내 목표는 월 거래액 1000억원 돌파다.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 2위 서비스인 '요기요'가 바짝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기요'는 지난해 말부터 TV 광고 등 매스마케팅을 통해 '배달의민족'과의 차이를 좁혔다. 최근엔 월 순방문자수 기준으로 턱밑까지 추격하기도 했다. '배달의민족'은 이에 신속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속적 업데이트와 각종 할인 이벤트 및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활성화 하는 등 수성전략을 펼쳐 최근 격차를 조금 더 벌였다.

●소셜커머스로 참전

향후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작지 않은 시장 규모 때문에 새롭게 생기는 서비스들이 많은 탓이다.

가장 공격적인 서비스는 업계 3위인 '배달통'이다. '배달통'은 특히 모바일 결제 시스템 'TTS(문자 음성 자동 변환기술)'를 통해 사용자가 결제하면 그 내용이 업체의 전화기로 전달되는 방식을 택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다른 앱과 달리 콜센터 등이 필요 없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수료가 업계 최저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인크로스에서 운영하는 '배달맛집' 등 다양한 배달 앱 서비스가 시장 경쟁에 나서고 있다.

최근엔 소셜커머스로 배달 음식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달 초 소셜커머스 서비스 '티몬'은 배달 쿠폰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 배달 앱과의 차별화를 위해 소셜커머스의 강점인 가격경쟁력을 더한 것이 특징. 최대 30% 가량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선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배달 상품 구매 금액의 5% 자동 적립, 제휴카드 이용 시 추가로 10%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 5개 지역의 400여개 배달 전문 음식점 쿠폰을 판매하고 있으며, 종류도 치킨, 피자, 족발, 분식, 도시락 등으로 다양하다. '티몬'은 상반기 중 서울 전역에 배달 쿠폰 판매를 시작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지역으로 서비스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병근 기자



‘가족의 달’ 5월을 앞두고 소셜커머스가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하며 고객집기에 나섰다. 쿠팡은 어린이날·어버이날·가족의 달 즐길거리 기획전을 개최한다. 사진제공 | 쿠팡

가족의 달 선물은 소셜커머스에서!

쿠팡·티켓몬스터 등 각종 기획전 마련
최대 85% 할인...알뜰한 선물구입 기회

‘가족의 달’ 5월을 앞두고 선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만치 않은 가격 탓에 어떤 선물을 골라야 할지 머리가 아프다면, 다양한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커머스의 기획전을 눈여겨보자.

쿠팡은 다양한 가족의 달 기획전을 실시한다. 이달 29일까지 진행되는 ‘어린이날 기획전’과 ‘어버이날 기획전’, 5월6일까지 진행되는 ‘가족의 달 즐길거리 기획전’ 등 총 3가지다.

자녀 선물로 안정맞춤인 아동용 완구·교구, 도서, 의류·잡화 등을 비롯해 호도선물로 제격인 인마기, 건강보조식품 등 총 400여개 상품을 최대 80% 할인가에 판매한다. 또 워터파크, 가족 뮤지컬 등 체험 상품과 외식 및 숙박이유권도 알뜰한 가격에 제공한다.

어린이날 선물로는 ‘도넛’의 인기 장난감 15종을 최대 41% 할인가에 판매한다. 부모

님을 위한 선물로는 텔레텍스트의 ‘전신 안마의자’를 60% 할인된 88만원에 선보인다. 이밖에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워터파크 ‘오션700’ 종일 이용권을 58% 할인된 1만 9000원에, ‘아쿠아플라넷 여수 아쿠아리움 특별권’을 성인 1만6500원, 어린이 1만 3300원에 마련했다.

티켓몬스터도 가족의 달을 맞아 알뜰하게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획전을 개최한다. 5월 4일까지 ‘어린이날 기획전’, 5월7일까지는 ‘어버이날 선물전’을 진행한다. 소비자는 최대 85% 할인된 가격에 완구와 의류, 문화상품 등 다양한 선물을 구매할 수 있다. 이미 할인된 가격에서 3000원~1만원까지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 즉시할인 쿠폰과 카드 할인을 통해 더 알뜰한 쇼핑을 할 수 있다. 어린이날 선물용으로 인기있는 ‘뿌로로 컴포트라이프’ 자전거는 26% 할인된 11만 8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어버이날 선물용으로 제격인 메디칼 드림 발자국 마사지는 29만8000원에 판매한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 @kimyke76

대법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본인이 확인해야”

“관할기관 별도 통지 규정 없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자가 확인하는 것이 맞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별도로 통지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확인해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홍모(4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 기간을 별도로 통지하는 규정은 없고, 단지 관할기관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주는 것”이라며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스스로 면허증에 적혀있는 검사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면허증만 꺼내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결과를 방임하거나 용인하는 의사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홍씨는 2010년 2월부터 8월까지로 정해진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홍씨는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이어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주는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2심은 “일반우편으로 보낸 안내통지가 실제 홍씨에게 송달됐다고 추정할 수 없고, 이 외에도 사전에 검사기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양형모 기자



LG ‘2014 울트라HD TV’ 인기몰이 LG전자는 2014년형 울트라HD TV가 예약판매 3주만에 900대 판매를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5·55·49인치 울트라HD TV 예약판매를 진행했다. LG전자는 예약 판매 상품을 25일부터 순차 배송한다. LG 울트라HD TV는 색 정확도가 높고 보는 각도가 달라져도 색 변화가 거의 없다. 또 넓은 시야각과 빠른 응답속도가 강점이다. 한편, LG전자는 84·79인치 초대형 프리미엄 울트라HD TV도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영원무역 ‘영원신진학자학술상’ 시상식

글로벌 아웃도어·스포츠웨어 전문 제조 및 수출 기업인 ㈜영원무역(회장 성기학)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의류학회(회장 유효선)가 주최하는 ‘제4회 영원신진학자학술상’ 시상식이 19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14년도 한국의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거행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영원신진학자학술상은 영원무역이 국내 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의류학회와 함께 2011년에 제정한 학술상이다. 만 42세 이하의 한국의류학회 회원으로서 최근 3년간 한국의류학회지에 3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게재한 학자 중 논문 수준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올해 수상자로는 경희대학교 양희소 객원교수가 선정됐다.

삼성SDS 과천데이터센터 화재발생

20일 오후 12시 20분경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삼성SDS 과천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삼성SDS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어깨를 다쳤으며 그 밖에 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천센터는 백업 데이터를 보관하는 곳으로 메인센터는 수원에 있어 데이터 유실은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삼성SDS 관계자는 “단순 외벽 화재일 가능성이 높다”며 “수원과 과천센터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설사 데이터에 문제가 있더라도 복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f

경마·경륜·경정, 27일까지 임시 휴장

경마·경륜·경정이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27일까지 휴장한다.

KRA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 이하 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이하 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의 슬픔과 함께 하기 위해 20일부터 27일까지 임시 휴장한다. 경마와 경륜은 20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경정은 23일, 24일 이틀간 경주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대상경륜(스프리즈선배)도 연기됐다.

마사회와 공단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국민들과 마음을 함께 하는 의미에서 휴장을 결정했다”며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보내며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염원한다”고 전했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 @ajapto